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9월까지 주민들 의견 종합적으로 검토 후 T/F팀 회의 거쳐 수정안 마련 계획

전주시가 60년 만에 개편 중인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하게 변경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0일 까지 전주시 33개 동과 혁신도시 등 34개 지역을 순회 방문하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주민설명회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주·완주 노선개편 T/F팀 회의를 거쳐 노선개편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에 참석할 약 2,000여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각 지역별 세부 노선개편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노선개편안을 공개한 SNS에는 약 56,000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2,100건의 댓글이 작성되는 SNS와 시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도 진행했다.

시는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쟁점지역 대상 재협의를 통해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완주군과의 협의 등을 거쳐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최종적인 노선개편안이 확정되면 환승시스템 변경과 환승승강장 개선, 승강장 노선도 제작 등 기반시설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함께 주 이용객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노선개편안 홍보와 안내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에서 대다수의 전주시민들은 실제 교통수요와 이동패턴을 고

려한 이번 노선개편안에 대해 대체로 만족감을 나타냈다.

특히 전주에 시내버스가 다닌지 60년 만에 처음으로 노선이 들어서는 신덕마을과 중화신동현대아파트와 영무에다움아파트 등 안행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노선개편을 환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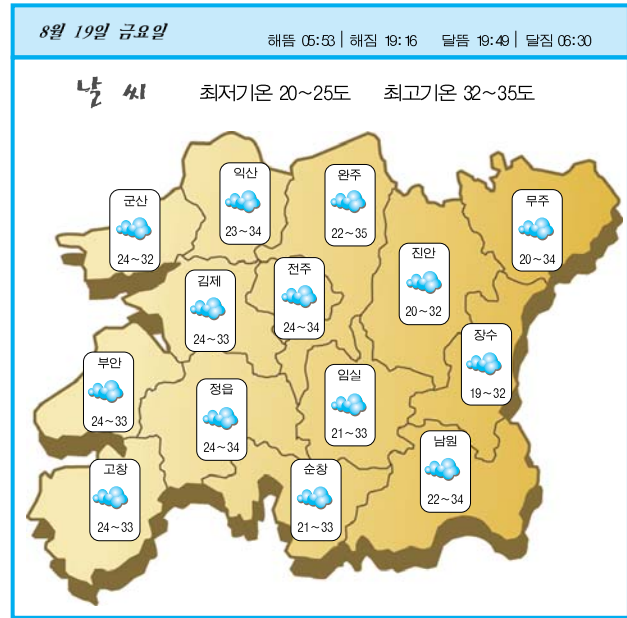
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 하가지구 등 대교교통 이용이 불편한 신규개발 지역에서는 노선개편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희망했다.

이밖에도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직통노선 요구와 본인 집 앞 노선 경유 등 좀 더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개인적인 요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일부 폐지·변경 예정 노선에 대한 문의와 일부 농촌동 노선의 증설 요구도 제기됐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이번 노선개편안에 많은 시민들이 만족하였지만, 한정된 시내버스 재원으로 인해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주민설명회 결과와 홈페이지 의견 SNS 등 다양한 시민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다수의 시민의 만족할 수 있는 노선개편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주·완주 노선개편T/F팀 운영 등 완주군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발달로에 편중된 시내버스 노선이 6개 축을 중심으로 다양화되고, 혁신도시 등 신규개발지역의 운행 노선이 확대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안을 마련했다.

/김영재기자



전북대, 고교생 초청 모의면접 실시 '호응'

"심층면접이 중요한 학생부종합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어요."

전북대(총장 이남호)가 18일 수시모집을 앞두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교생들을 대학에 초청, 모의면접을 실시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공교육 활성화와 우수인재 유치 등을 위해 마련된 이날 모의면접은 교수와 전임 입학사정관 50여 명의 면접위원이 3인 1조로 편성돼 학생 1인당 15분씩 실제 입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오전과 오후 각 8개조로 나뉘어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모의면접에 임했으며 면접 이후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도 실시해 고교생들이 입시 면접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됐다는 평

가가 뒤따랐다.

이날 모의면접에 참여한 근영고 3학년 천주영 학생은 "입시면접은 직접 경험해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수시모집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준 전북대 입학본부장은 "모의면접을 통해 참여 학생들은 면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부담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무척 보람을 느꼈다"며 "매년 실시하는 고교생 초청 모의면접을 통해 고교-대학 연계 강화는 물론 고교교육 정상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전주시, 승암 새뜰마을 조성사업 주민 참여형으로 진행

대표적 도시재생사례 은평구 산새마을 방문

전주시가 노후주거지 밀집지역인 교동 승암마을이 주민참여 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다.

전주시는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 '승암 새뜰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승암마을 주민 40여명이 참여해 네 번째 '선진지 견학'이 진행됐다고 18일 밝혔다.

교동 승암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2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 도시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19년까지 국비 28억원 등 총 40억원을 투입해 마을 정비와 주민역량 강화, 마을공동체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승암마을 주민들과 함께 대표적인 도시재생사례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새마을을 방문, 벤치마킹을 통해 알찬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 산새마을은 지난 20년 넘은 노후 주택이 10집 중 8집에 달하고 저소득층과 고령자 비율이 높은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로, 지난 2012년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활발한 주민자치와 저층주거지 재생이 이뤄져 살맛 나는 동네로 변신했다.

승암마을 주민들은 이번 산새마을



전주시는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 '승암 새뜰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승암마을 주민 40여명이 참여해 네 번째 '선진지 견학'이 진행됐다고 18일 밝혔다.

선진지 견학을 통해 성공한 도시재생 사례를 직접 보며 공동체 단합의 필요성과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 또 주민들 간 화합을 위한 소중한 만남의 기회가 제공돼 다음 주민 교육에도 지속적인 참여할 의사를 내비쳤다.

시는 승암새뜰마을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주민교육과 주민간담회,

마을공동체 활동 등을 올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승암새뜰마을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총 7차례의 주민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간담회를 통해 마을문제 및 갈등에 대한 의견조정 및 향후 주

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선이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승암마을의 주인인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영재기자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 14명 역대 최고치 근접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가 14명으로 집계됐다. 유래 없는 폭염에 사망자수는 지난 2012년 15명 이후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5월23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집계한 온열질환자수가 1835명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5월24일~8월17일) 1027명보다 78.8%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온열질환 사망자는 ▲2011년 6명 ▲2012년 15명 ▲2013년 14명 ▲2014년 1명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까지 총 61명에 달한다.

올해 온열질환자는 남자가

74.0%(1357명)로 많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27.0%(495명)의 비중을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14.3%(26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직(노숙인 제외) 12.8%(248명), 기생 및 관련기능 종사자 10.3%(189명), 주부 7.5%(137명), 학생 6.2%(113명)로 뒤따랐다.

발생시간은 질병관리본부가 주의시간대로 권고한 '낮 12시~오후 5시'의 비중이 49.3%에 불과할 정도로 고르게 분포됐다.

/뉴시스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

제10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축제

다이나믹한 무대 속으로 Go! Goo!

2016. 9. 2.(금) ~ 4.(일) 전라북도 장수군 이암공원 및 장수군 일원

<p>9/2</p> <p>KBS전국노래자랑 13:00~15:30 (현철, 송대관, 김혜연, 박상철, 박진선)</p> <p>개막 축하공연 19:00~22:00 (EXID, 흥진영 등 13개팀)</p>	<p>9/3</p> <p>뮤지컬 '논개 꽃으로 피어나다' 19:00~20:00</p> <p>레드락 페스티벌 20:00~21:50 (장미여관, 노브레인)</p>	<p>9/4</p> <p>한우랑사과랑 가요제 13:00~15:00</p> <p>주현미 K-재즈 콘서트 19:40~21:30</p>
---	---	---

장수몰 mall | NAVER | 장수몰 검색 | 검색하세요